

“자동차 부품 · 설비사업에 주력”

명신, 군산형일자리사업 사후관리 방안 입장문 전달

전북 군산형일자리사업 참여기업 중 (주)명신이 사업방향 전환에 대한 입장문을 전달했다.

(주)명신은 전기차 시장 둔화 등 대내외적인 상황이 악화되어 추진 중이던 친환경 완성차 사업에서 자동차 부품사업 및 자동화설비사업 등에 주력하면서 경영 구조 개선 및 경영 안정화를 우선으로 한다는 입장이다.

군산시는 기업경영 안정화를 위한 사업 다각화는 기업고유 결정사항이며, (주)명신이 군산형일자리 사업목적 유지 및 참여의사가 있는 한 지속적으로 군산형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군산형일자리사업 지정 이후 시는 참여기업에 대하여 투자·고용·생산

실적 및 상생협력 이행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원해 왔다.

지난 4월말 기준으로 분야별 실적은 투자 58.3% (3,160억원 실적/5,412억원 계획), 고용 32.3% (554명 실적/1,714명 계획), 생산 1.3% (4,292 실적/325,372 계획)이다. 목표대비 실적은 다소 저조하지만, 참여기업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명신은 경영 안정화 및 사업 확대를 위해 신사업 분야를 모색하고 있고 KGM커머셜은, 전북도 내 부품업체들과 협력하여 신차종(QM) 중형버스 인 증설차 머무리 단계로 하반기 중에 본격 양산 및 판매 예정이다.

대창모터스는 마비지 준공 준비에 한창이며, 코스텍은 전장 및 사출 부

품 등의 물량이 증가하여 생산에 매진하고 있다.

앞으로 군산시는 군산형일자리 지속 추진을 위하여 상생협력 이행사항인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등 참여기업 근로자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임금관리위원회 및 공동교섭 활동으로 적정 임금을 도모하는 등 근로자 소득증대 지원 및 고용안정 촉진에 힘쓸 것이다.

또한 현재 진행중인 R&D 사업은 유관기관과 협력, 이행과제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희망퇴직 인력에 대하여는 (주)명신의 노력(그룹 계열사 및 전기차 전후방기업 이직 알선) 외에도 군산시 주력산업 일자리센터, 군산시 일자리센터, 군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과 연계 협력하여 재취업 알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군산=이재훈 기자



익산시가 (재)익산문화관광재단과 함께 한국 방문의 해를 맞아 특별 기획 상품을 판매한다.

“백제왕도 익산 놀러오세요”

익산시, 한국 방문의 해 유네스코 유산 패키지 특별 상품 출시

익산시가 (재)익산문화관광재단과 함께 한국 방문의 해를 맞아 특별 기획 상품을 판매한다.

30일 익산시에 따르면 이번 상품은 오는 7~9월 총 12회차를 운영할 예정이며, 지난 5일부터 사전 판매를 시작해 2주 만에 120건 이상의 판매고를 보이고 있다.

상품은 익산 백제역사유적지구와 서울 경복궁 종묘, 경주 불국사 등 총 7개 도시 9곳의 유네스코 유산을 5일 일정으로 여행한다.

이번 상품은 지난 춘분 골드위크(4월 27일~5월 6일)에 일본 후쿠오카에서 개최한 케이(K)-관광로드쇼의 수확 중 하나로, 일본의 대표 여행사 중 한 곳인 (주)리뷰교토를 통해 진행한다.

익산문화관광재단은 K-관광로드쇼에서 복식 체험 등을 통해 백제왕도의 이미지를 선보이고, 한국 방문의 해를

맞아 한문회의 발상지인 익산을 직접적으로 앞세운 홍보마케팅에 나섰다.

K-관광로드쇼에서 안내받은 정보를 기반으로 후쿠오카 개별 여행객(IFT)도 지난달부터 현재까지 지속해서 익산을 방문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백제가 가장 화려하게 꽃피었던 역사 문화 도시 익산에 관심을 가지고, 백제의 궁과 사찰, 성곽의 유적이 남아있는 미륵사지, 왕궁리유적, 국립익산박물관을 방문하는 등 익산의 매력을 흠뻑 느끼고 돌아갔다.

공주와 부여로만 알고 있던 백제였지만 실제적 유물로 남아있는 익산 방문을 통해 진짜 백제의 기운과 얼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평이다.

익산시는 익산과 K-콘텐츠를 연계한 상품을 지속해서 출시하고 대외적이고 공격적인 홍보 마케팅을 펼칠 예정이다. /익산=이재훈 기자

‘시민 안전 최우선’ ... 익산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17개 기관 250명 참여... 풍수해 재난 대응 능력 점검 · 역량 강화

익산시가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재난 상황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에 나섰다.

시는 30일 풍수해 재난 대응력 향상을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2024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각종 재난에 대비하고 대응 역량을 높여 실제 재난 발생 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하는 방곡가족 훈련이다.

훈련에는 익산시청, 익산소방서, 익산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자율방재단, 익산시 자원봉사센터, 대한적십자 등 총 17개 기관 250명이 참여했다.

익산시는 지난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던 만큼 실제 대응 능력을 키우

기 위해 훈련유형을 풍수해로 정했으며 △취약성 파악 및 대비 △실제와 같은 재난 상황 훈련 △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에 중점을 뒀다.

재난 발생 시 대응 상황을 재현하고 자 익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현장 연락 급과 등 통합 연계 훈련을 펼쳤으며, 재난안전통신망(PS-LTE)을 적극 활용해 상황판단 토론훈련과 현장 훈련을 실시간 연계했다.

익산시 재난안전상황실에서는 정현을 익산시청 주재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 판단 회의를 진행했다. 태풍으로 인한 피해 상황이 발생한 것을 가정하고 현장 훈련 연계와 함께 둔치 주차장 통제, 가로수 전도, 제방유실

대응 등을 논의했다.

실제 상황을 방불케 한 현장 훈련은 유전배수펌프장 일대에 사상자와 매몰자가 발생한 재난 상황을 가정해 진행했다.

태풍 내습에 따른 징후감지, 초기대응, 비상대응, 이재민구호, 수습복구 순으로 훈련을 진행해 재난 상황별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기관별 대응 역량을 높였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재난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할지 예측이 어려운 만큼 철저한 대비와 대응 능력 향상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재난대응 훈련을 통해 어떤 상황에서도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군산시, 2025년 예산편성 시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군산시는 시민이 직접 참여, 제안하여 예산반영까지 진행되는 2025년 예산편성을 위한 시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및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시민참여예산제도’는 사업 발굴부터 예산편성, 집행 결산, 환류까지 예산의 모든 과정에 시민이 참여하는 제도로, 참여예산을 통해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재원 배분의 공정성을 높이는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공모 신청은 6월 3일부터 21일까지로

시정분야(10억원 규모)와 지역분야(13억 5천만원 규모) 2가지 분야로 구분해 신청을 받는다.

시정분야는 군산시청 홈페이지(시민광장플랫폼)와 군산시청 기획예산과로 접수하고, 지역분야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공모 분야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으로 △주민생활에 관계가 있는 사업 △시민 전체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공익성이 높은 사업 △주민생활 불편 해소 위한 사업 등이다.

접수된 제안사업은 사업부서에서 법령·사업 타당성 검토를 거쳐게 된다. 시정분야는 최종 선정은 온라인 투표와 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심의로 결정되며, 지역분야는 읍면동의 참여예산 지역위원회 심의 과정을 거친 후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다.

군산시는 지난해 시민참여예산 공모 결과 총 122건 23억3,000만원의 사업을 선정하여 주민의 불편해소와 주민화합을 위한 특색있는 사업에 투자했다. /군산=이재훈 기자

군산시, 어족자원 보존 위해 낙지 방류 추진

군산시(시장 김일준)는 옥도면 개야도 해역에 어족자원을 보존하기 위해 최초로 교배된 어미 암·수 낙지 1,300여 마리를 방류한다고 밝혔다.

낙지는 갯벌을 형성하고 있는 마을 어장에 서식하는 고부가가치 어종으로 피로회복에 좋은 타우린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갯벌 속의 산삼’으로 불릴 정도로 인기가 많다.

그러나 무분별한 남획과 해양환경 변화로 어획량이 감소하고 있어 군산시는 낙지의 자원 보호 및 자연적인 증식을 위해 6월 1일부터 30일까지 포획·채취 금지기간으로 운영하면서 자원 보호에 힘쓰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인공산란장에서 교배한 암컷, 수컷 낙지를 방류하는 이번 사업을 통해 군산시는 낙지 자원량 증대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어획량 증가를 위한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산=이재훈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 고액체납자 하반기 출국금지 추진

군산시가 2024년 하반기 고액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를 추진한다. 이번 출국금지 요청 대상자는 94명이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65억원에 이른다.

출국금지는 지방세징수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3천만원(정리보류액 포함)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자 중 체납처분 회피 우려자 및 망단이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일단 군산시는 출국금지 요청에 앞서 예고서를 발송하여 자진 납부를 독려, 유도할 방침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대상자에 대한 출국금지 사실조회, 압류 재산의 실의 분석 생활실태 조사 등을 면밀하게 실시하고, 출국금지 대상자를 선정하여 전 북특별자치도에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출국금지 기간은 2024년 7월부터 12월까지이며, 기 출국금지자 중 연장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는 연장신청도 가능하다.

/군산=이재훈 기자

군산시, 전통시장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군산시가 해양수산부 주관하에 6월 1일부터 6월 12일까지 12일간 공설·신영·역전시장에서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추진한다.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전통시장의 수산물 소비 활성화와 소비자 물가부담 완화를 위해서 추진되며, 행사 기간 내 당일 구매액이 3만4,000원 이상 6만7,000원 미만일 경우 1만원, 6만7,000원 이상은 2만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또한 6월 1일부터 7월 6월 8일부터 12일 각 기간별로 1인당 1번씩 환급이 가능하므로 최대 4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참고로 6월 2일은 시장 휴무일이므로 행사를 진행하지 않고, 6월 6일 현충일은 정상적으로 운영한다. 환급은 구매 고객이 당일 발행된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절차로 진행된다. /군산=이재훈 기자

전북의 역사 · 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일제강점기 수탈의 상징

구 군산세관 본관

국가지정 사적 제545호인 구 군산세관 본관은 1908년 단층으로 지은 건물이다. 이 건물은 군산항을 통해 드나들던 물품의 관세를 거두었던 곳이다. 1899년 군산항을 개방한 이후 인천세관 관할에 있던 군산세관은 1906년 인천세관 군산지사를 설립한 이후 이 건물을 완공했다. 붉은 벽돌을 사용해 건물의 외관을 꾸미고 목조를 사용, 내부를 장식했으며, 또한 슬레이트와 동판으로 지붕을 만들고 그 위에 세 개의 뾰족한 탑을 세웠다. 구 군산세관 본관은 건축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곡창지대인 호남지방의 곡물을 수탈하는 역사적인 현상이었다는 점에서 후대에게 교훈을 주는 곳이다.